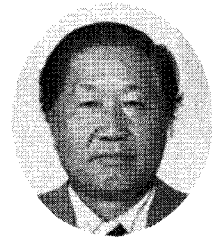


# 당뇨병 치료에 있어서 먼저 생각할 것은 ?



김응진(을지병원·당뇨병클리닉)

당뇨병을 치료한다면 곧 식 Mayo법, 운동요법, 내복혈당강하제요법, 인슐린요법 등이 머리에 떠오를 것이나, 먼저 환자의 치료 목적은 환자의 생활과 삶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작해야 한다.

모든 치료법은 생활의 질(質)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할 것이다. 오늘날 당뇨병환자수의 증가, 환자의 예후를 좌우하는 치료법의 진보 및 합병증 빈도의 증가등 사회학적인 폭넓은 영향을 생각하면서 치료에 임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학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당뇨병과 그 합병증의 조기발견, 환자의 사회복귀, 치료로부터의 탈락방지 등의 문제까지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 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치료에 임해야

한사람 한사람의 환자에 대하여 본다면 의료측과 환자측이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치료의 수단을 협력해서 받아들이고, 그 효과를 공통의 지표에 따라 서로 확인하면서 공통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을 잘 알고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식 Mayo법을 비롯하여 모든 치료법들은 물론이요, 근년에 주목되기에 이른 팀의료라든지 자기치료라는 방법도 등장하고 있다.

또한 당뇨병치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임상 각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당뇨병의 원인도 복잡하고 합병증도 여러가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팀의 구성도 필요하게 된다.

최근에는 종래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는 줄만 알았던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에대한 조기발견과 치료법을 잘 알고있을 필요가 있다. 본증에 대하여는 선진 여러나라에서는 자기면역억제제(自己免疫抑制劑)의 조기투여, 췌장이식(胰臟利殖), 인공췌장(人工胰臟) 등 완치를 향하여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팀의료·자기치료법 등장

위의 내용을 배경으로하여 치료개시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개념을 간추린다면 다음과 같다.

1) 당뇨병의 치료는 환자의 생활의 질(Quality of Life)을 높이는 데 있다.

2) 이를 위하여는 생활의 질을 방해하는 고혈당의 시정, 특유한 급성 및 만성합병증의 예방과 치료에 온 정성을 쏟는다.

3) 특히 그중에서도 특유한 만성합병증에는 당뇨병발병의 이른 시기부터 혈당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일이 예방에 필요하다. 그러기 위하여는 합병증의 조기발견과 혈당의 정상화 평가법이 필요하게 된다.

4) 당뇨병에는 갑상선기능항진증, 췌염, 췌암, 갈색세포종(褐色細胞腫) 등 여러가지 원인질환이 있기때문에 치료를 시작할 경우에는 그 감별이 중요하며, 수술에 의하여 완치되는 당뇨병이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을 발견했을때 이미 특유한 합병증이 진행하여 있었다는 경우가 많다는 것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5) 이러한 원인병, 병발증이나 합병증을 가진 환자를 다룰때에는 혈당검사에만 구애하지 말고 세심한 정밀검사를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른바 죽음의 사중주(deadly quartet), 즉 당뇨병에다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들이 동맥경화증을 일으켜 사망율을 크게 높인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6) 또한 본격적인 치료를 진행시키는 데는 의료종사자측의 교육, 검사와 치료에 관한 사회적인 대응능력, 환자교육, 다시금 환자를 둘러싸고 있는 국민적인 합의와 이해라는 폭넓은 치료태세로부터 의사사이, 의료기관사이, 국제간의 협력이라는 문제들도 포함된다는 것을 잘 알고있을 필요가 있다.

## 당뇨병치료에 앞서 선행돼야 할 사항

끝으로 당뇨병치료에 임할때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본다면 아래와 같다.

(1) 정확한 진단밑에 치료를 시작할 것

(2) 의료종사자 사이에서 충분한 의지통일(意志統一)이 있을 것

(3) 의료측과 환자는 일치한 치료목표를 가질 것-여기에는 충분한 설명과 상호이해와 동의가 필요하다.

(4) 의료측과 환자는 치료효과에 대하여 서로 평가할 것

예컨대, 왜 혈당치를 정상화하려고 노력하는가, 어떻게 하면 정상화의 목적이 이루어지는가, 혈당정상화의 목적이 이루어졌는지 어떤지는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되는가, 판정을 위한 수치(數値)는 어떻게 읽는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등 기본적인 사항들이 환자에게 충분히 이해돼 있어야 한다.

환자에게 이해될려면 먼저 의사측 특히 간호사, 영양사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 첫째의 단계가 된다. 이러한 사실은 충실한 치료를 위하여는 피할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있다. ㉔